

광주시교육청, '면 마스크' 전달 받아

지역 사회 종교단체 200매 기탁 시교육청서 배포한 키트로 제작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면 마스크 나누기 캠페인' 행렬에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들도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단체는 시교육청에서 배포한 면 마스크 키트로 만든 면 마스크 200매를 인근 학교 전달을 위해 시교육청에 기탁했다. 시교육청은 기탁 받은 면 마스크를 어룡초등학교에 최근 전달했다.

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랑 한

땀 나뉨 한 땀 면 마스크 나누기 캠페인'에 마을교육공동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학부모회 등 79개의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했고, 만들어진 5,000매의 면 마스크는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됐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담당관은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방역물품·생필품·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꾸러미'



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비대면으로 취업지원 실시

일자리센터에서 제공

순천대학교가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취업지원 멘토링과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 올바른 진로설정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지원 멘토링과 온라인 솔루션을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비대면 취업지원 멘토링은 순천대 경력개발시스템(항림동)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학생에게 단과대학별 담당 취업지원관이 ▲1:1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및 진로·취업자료 제공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이 진로와 취업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천대학교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인재개발본부장겸)은 "청년들에게 원스톱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내외 유관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으로 순천대학교가 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취업솔루션(에듀스)은 △AI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AI면접동영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온라인 직무적성 검사 △직무적성검사 E-BOOK △NCS기반 자기소개서와 면접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19 발병 이후 59명의 학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신입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과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온라인 교과과정(대학생활과 목표설정)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현재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1:1 대면상담을 통한 면접컨설팅과 이미지 메이킹, 면접복장 대어 등 다양한 취업지원·진로 지도 정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담양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민·관협의회 개최



담양교육청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민·관 협의체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대안교육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청,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대안학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협의회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공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사회적 통합 지원 방안 마련 및 학업 복귀 지원을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전남의 경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양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협업체제 구축으로 한 명의 학생도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남교육청 5단계 연수전략으로 원격수업 정복

초·중등 교사 3만8,000명 실시간 라이브 연수 참가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5단계 연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5단계에 걸쳐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1단계는 원격수업 플랫폼 선호도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지난달 초에 했다. 조사 결과 도내 교사들은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팀즈

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단계는 원격수업지원단 구성·운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지원단은 44명(22개 시·군 교육지원청 별 초·중등 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원격수업 상담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단을 통한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등의 연수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뤄졌다.

3단계는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즈 학교 계정 부여를 통한 원격수업 기술적 지원이다. 도교육청

은 지난달 12일부터 진행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즈 사용을 복잡한 개인 인증 절차 없이 학교 계정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4단계는 초·중등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즈 실시간 생·재방송 연수로 이번 연수의 하이라이트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된 총 3차례의 생방송 연수에는 3만 3,000여 명의 교원들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즈 실시간 생방송 및 재방송 연수를 플랫폼 기능소개, 수업활용, 학습평가 등의 내용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

했다. 짧은 시간에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수라는 평가를 얻었다.

마지막 5단계는 초·중학교 e학습터와 고등학교 EBS 온라인클래스 등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 연수로 지난 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했고 5,0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전남교육청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연수가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기본 인식을 끌어올리고 교사 개개인에게 알맞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고흥교육청, 개학 대비 마을학교 방문 점검



고흥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관내 마을학교 9개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각 마을학교에 위생용품과 포스터를 전달하여 환경 및 개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방역 대책 협의 및 향후 마을학교 프로그램 일정 조정을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학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자칫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마을교사의 사기 진작 및 격려의 자리도 마련되

었다.

고흥 마을학교는 광역형 2개소, 학교밀착형 7개소로 총 9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심마을학교인 고흥온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튼튼하고 유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로 재도약하는 중이다.

꿈꾸는놀이터 마을학교 김경희 대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마을 학교도 아이들이 없으니 너무 허전하다. 단계적 등교 개학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 마을학교 개학 준비도 더욱 충실히 하여 아이들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주 교육장은 "마을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며 노고를 격려하고 이김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